

김병구 소장 紺紙金字『大方廣佛華嚴經』卷第22의 서지적 연구

A Bibliographical Study of Byung-gu Kim's Collection Written
in Gold on Dark-Blue Paper *Flower Ornament Sutra* Vol. 22

남 권 희 (Nam, Kwon Hee)*

석 해 영 (Suk, Hae Yung)**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 양식 분석 |
| 2. 형태와 구성 | 3.1 표지화 |
| 2.1 형태사항 | 3.2 변상화 |
| 2.2 구성 및 체재 | 4. 맺음말 |
| 2.3 저본과의 교감 및 서체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연구는 김병구 소장의 신출 자료 紺紙金字『大方廣佛華嚴經』卷22 寫經에 대한 서지적 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최근 미국 뉴욕공공도서관 소장『大方廣佛華嚴經』卷72 寫經도 온라인으로 공개됨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함께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해당 자료는 현재 일본 大和文華館 및 徳川黎明會 등에 소장된(『大方廣佛華嚴經』卷1, 4, 35, 36, 42, 78) 자료들과 같이 表紙畫에는 10송이의 蓮花를 배치하고, 變相畫에는 코발트색 및 분홍색의 顔料를 사용함은 물론 가장자리 문양대(三鈷杵의 모양)와 地雲紋, 寶蓋의 표현 등에서 모두 동일한 양식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사경의 제작 시기는 14세기 초중반으로 추정되며, 高麗 寫經 중 단연 화려하고 독특한 양식을 지닌『大方廣佛華嚴經』寫經 1질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要語: 大方廣佛華嚴經, 高麗, 寫經, 顔料, 表紙畫, 變相畫

<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a bibliographic analysis of Byung-gu Kim's collection, Written in Gold on Dark-Blue Paper (紺紙金字) *Flower Ornament Sutra* (大方廣佛華嚴經) Vol. 22. Recently, the New York Public Library, Vol. 72 was also released online and reviewed together. As a result, the materials (Vol. 1, 4, 35, 36, 42, 78) are confirmed to be identical to those currently held in the Yamato Cultural Center (大和文華館), Tokugawa Dawn Society (徳川黎明會) etc in Japan. In the cover painting (表紙畫) 10 flowers were arranged, cobalt and pink-colored pigment (顔料) were used for the phases, and the same stylistic features were identified in the shape of the edge pattern, the shape of the land-cloud (地雲紋), and the shape of cover of the tower (寶蓋). Combining these features, it is estimated that the period of manufacture was in the early and mid 14th century. It is estimated that manuscript (寫經) is one of the most unique sets of *Flower Ornament Sutra* made during the Goryeo Dynasty (高麗).

Key words: *Flower Ornament Sutra*, Goryeo Dynasty, manuscript, pigmen, cover painting, the Frontispiece Painting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제1저자)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원(shy7694@hanmail.net) (교신저자)

투고일: 2020년 2월 19일 최초심사일: 2020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20년 3월 11일
서지학연구, 제81집, 89-112,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1.89>

1. 머리말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개인 구복을 위한 공덕을 쌓는 불사 행위는 고려시대 왕실과 귀족층들에 의해 널리 유행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전 자체를 지니고 읽으며 쓰고 외우는 것(受持讀誦)이 불교를 전파함과 동시에 행위자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방편임이 경전에 그대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사경의 제작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는 기록들이 전할 뿐 아니라 왕실 내에서도 개인적으로 사성한 경우가 있다. 최근 충선왕대 제국대장공주가 원성공주 시절 발원한 사경이 일본에서 발견되어 주목된 바 있다.¹⁾

현재까지 학계에 알려진 사경은 주로 국왕 발원 사경과 개인 발원 사경으로 나누어지며, 그 차이는 저본에 따른 행자수 및 체재, 표지화와 변상화의 양식 등에 있다. 또한 명확한 사성 기록이 없는 자료들의 경우는 대부분 그 제작 시기가 명확한 작품들과 대조·비교하여 해당 시기를 추정한다. 대체로 국왕 발원 사경은 1행 14자의 체재에 표지에는 5송이 가량의 연화를 배치하고, 권수에는 신장상이 그려진다. 이에 반해 개인 발원 사경은 1행 17자의 체재에 표지에는 3~4송이의 연화를 세로로 나란히 배치하고, 권수에는 해당 경전의 내용을 알기 쉽게 도해한 변상화가 덧붙여져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紺紙金泥『大方廣佛華嚴經』卷22는 개인 발원 사경 중에서도 그 표지화나 변상화의 양식이 독특한 자료에 속한다. 이와 유사한 자료 가운데 이미 공개된 것으로는 현재 일본 大和文華館 및 徳川黎明會 등에 소장된(화엄경 권1, 4, 35, 36, 42, 78) 것들이 있으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大方廣佛華嚴經』卷22 사경은 이들과 같은 시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표지화에 10송이의 연화를 배치하고, 변상화에는 코발트색 및 분홍색의 안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에 해당 사경을 기존 자료들과 비교 분석하여 표지화 및 변상화의 양식적 특징을 규명하고 나아가 그 사성 시기를 가늠해보고자 하였다.

한편, 이와 동일한 양식의『大方廣佛華嚴經』卷72가 2015년 뉴욕공공도서관 전시회에 출품되어 그 상세 사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²⁾ 최근 중국에서 발간된 책³⁾에도 수록되어 있어 이 자료 또한 함께 고찰하였다.

1) 남권희, 석혜영, “1284년 忠烈王, 元成公主 발원 金字大藏『百千印陀羅尼經(合部)』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74집(2018), 261-310.

2) <https://digitalcollections.nypl.org> 디지털 컬렉션.

3) 浙江大學 亞洲研究中心編, 『高麗畫全集 1- 舊美所藏篇』(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18).

2. 형태와 구성

2.1 형태사항

‘華嚴經’으로 약칭되는 『大方廣佛華嚴經』(이하 『華嚴經』)은 부처와 중생이 하나라는 것이 경전의 중심사상으로 毘盧遮那佛을 교주로 하며,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妙法蓮華經』(이하 『法華經』)과 함께 큰 영향을 끼쳤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김병구 소장의 『華嚴經』卷22는 實叉難陀(652~710)가 漢譯한 周本 80卷本 가운데 卷22를 底本으로 하여 紺紙에 金泥로 筆書한 것인데, 사성된 시기는 14세기 초중기로 추정된다.

서명사항 : 大方廣佛華嚴經 卷第22

저자사항 : 于闐國三藏實叉難陀奉 制譯

판 사 항 : 筆寫本(折帖本)

사성시기 : [14世紀 初中期]

형태사항 : 零本 1帖, 紺紙金泥, 1折 6行 17字, 上下雙邊, 有界, 匡高 20.4cm ; 30.8×10.9cm

책의 형태는 零本 1帖으로 卷首에 있는 變相畫를 포함한 전체 장수는 10장이고 본문은 1절 6행 17자로 되어있으며 9절이 1장(마지막 장은 5절)을 이룬다. 표지 서명을 비롯한 변상화의 크기 및 紙幅과 종이의 두께, 색차 값 등은 아래와 같다.

크기(cm)		색차 값	
표지 서명	13.9×2.6	앞표지	L48.6 a+5.7 b+19.6
변상화	20.8×43.3	본문 종이	L24.7 a+2.1 b-1.4
변상화 제목	17.3×2.1	본문 글자(금니)	L43.3 a+4.7 b+16.4
변상화 테두리 폭	1.0	종이두께(mm)	
장면	17.3×37.3	앞표지	0.35
紙高	30.8	뒤표지	0.45
紙幅	98.1	본문	0.15

앞 표지화의 양식을 살펴보면 모두 金泥를 사용하였는데, 테두리는 태선-세선으로 되어 있으며 10개의 연화문이 상단부터 아래로 ‘2-1-2-2-1-2’개로 배치되어 있고 그 주위를 唐草紋이 둘러싼 형상을 하고 있다. 또한 표지화 중앙의 標題는 태선-세선의 장방형 구획선 속에 開法藏眞言 표시인 ‘鶴立蛇橫’과 ‘大方廣佛華嚴經 卷第二十二’라는 經題가 쓰여 있고 표지의 위쪽에는 覆蓮形의 寶蓋가 있으며 아래쪽에는 仰花가 그려져 있다. 해당 자료의 표지화와 같은 독특한 형식과 흡사한 다른

자료로는 일본의 徳川黎明會 소장 『華嚴經』 卷1・4, 일본 大和文華館 소장 『華嚴經』 卷35・36, 太山寺 및 天倫寺 소장 『華嚴經』 卷42, 소장처 미상의 卷78, 미국 뉴욕공공도서관 소장의 卷72가 있다.

2.2 구성 및 체재

『華嚴經』은 부처님 말씀의 결집과정을 거쳐서 편찬된 대승불교 초기의 중요한 경전이며 중국으로 전래되어 번역된 한역본으로 隋本・周本・貞元本 등이 있는데, 이를 ‘삼본 화엄경’이라 통칭하여 부르기도 한다.

처음의 60권본은 佛馱跋陀羅(359~429)가 편찬한 것으로 화엄종 제3조 賢首, 法藏이 日照가 인도에서 가져온 梵本에 의거하여 결락된 부분을 보완한 뒤 60권본으로 완성하였다. 초기의 간본이나 돈황본 및 고려의 초조대장경에서는 隋本 화엄경의 권수가 50권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⁴⁾ 그 내용은 60권본과 같으며 다만 分卷의 분량만 다를 뿐이다. 이어서 日本 80권본 『華嚴經』은 695년에 于闐國 출신의 實叉難陀가 洛陽의 佛授記寺에서 번역한 경전이다. 이 시기는 則天武后에 의해서 국호가 ‘周’로 고쳐졌기 때문에 실차난타가 번역한 『華嚴經』을 ‘周本’ 또는 ‘周譯’으로 불렀으며, 또한 『華嚴經』을 새로 번역하였다는 의미에서 ‘新譯’으로 부르기도 했다. 새롭게 번역되었기에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고 문체가 유려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가장 늦게 번역된 貞元本은 般若三藏이 德宗 연간에 다른 범본을 저본으로 하여 真本과 日本 『華嚴經』의 마지막 장인 『入法界品』만을 대상으로 따로 번역하여 40권으로 편찬한 것이다.

『華嚴經』을 전거로 하여 성립된 중국의 화엄종에서는 日本 80권본 『華嚴經』이 가장 널리 전파되고 연구되었다. 그 결과 여러 시대에 걸쳐 고승대덕의 연구가 계속되어 후세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쳐 유명한 註釋書들이 많이 찬술되었으며 중국 澄觀(738~839)의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와 李通玄(635~730)의 『新華嚴經論』 등 송대에 이르러 거듭 발전하게 된다. 이어 한국에서는 신라, 고려에서 義湘, 元曉, 義天 등 여러 고승들의 문헌과 목록에 유전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일본에까지 미치게 되었다.⁵⁾

4) 이승재, 『50권본 <華嚴經>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5) 현존하는 『華嚴經』의 수는 고려시대 재조대장경, 부석사 소장의 삼본 화엄경의 목판을 비롯하여 판목이 다수 남아 있으며 사찰에서 간행된 12-13세기 印本들과 간행경전의 일부 품인 普賢行願品, 淨行品 등 독립적으로 간행한 판본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章疏類도 전해지고 있다. 조선시대에 있어서는 경전 자체보다는 주석서의 간행이 중국 판본을 번각하면서 여러 곳에서 이루어졌다. 초조대장경본 『華嚴經』은 국내에 30여점이 현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11세기에 대장도감에서 조성한 경판에서 인출되었으며 사찰본은 40여점이 있다. 초조본 화엄경 중 현재 국보나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판본은 모두 80권본인 日本 화엄경에 해당된다.

2.3 저본과의 교감 및 서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김병구 소장 자료『華嚴經』卷22 외에도 최근 공개된 卷72⁶⁾의 경우 미국 뉴욕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包匣을 비롯한 全文이 공개되어 있으며, 관련 사이트를 밝힌 후 이용 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전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에 저본과의 교감 및 서체에 대해서는 卷72의 자료를 함께 다뤄보고자 한다.

해당 사경들의 서체들은 주로 충숙왕대 활동한 명필들, 즉 李齊賢이나 李巖 등을 비롯하여 범주사의 ‘慈淨大師碑’를 쓴 全元發이나 ‘月精社施藏經碑’를 쓴 승려 宗古 등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며, 당시 이들에 대한 기록이 문헌에서도 확인된다.⁷⁾ 전원발의 경우는 단아한 楷書의 필치가 ‘言’字 등에서 부분적으로 송설체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李巖의 경우, 충숙왕의 적극적인 충애를 받던 인물로 文殊院의 ‘藏經碑’를 쓰게 되었을 것이며, 이 ‘장경비’는 이제현이 글을 짓고 이암이 글을 썼으며, ‘大’, ‘子’, ‘元’字 등 松雪體 특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송설체의 유입이 충선왕대 萬卷堂을 통해 유입되기 시작했을 것이나,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때를 충숙왕대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충숙왕대 사경 서체에서도 송설체가 상당히 유행하였음을 다른 사경서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⁸⁾

그러나 이때까지도 사경서체에서는 기본적으로 歐陽詢體의 틀을 지키면서 부분적으로 송설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觀’字의 ‘見’ 변의 특징은 송설체의 특징을 따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구양순체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특징은 ‘사경’이 ‘배껴 쓰는 경전’이라는 본래의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충숙왕 복위 연간(1332~1339)에 이르면 사경서체에 송설체의 유입이 한층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유입에는 앞서 언급한 이제현 및 이암과 같은 인물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⁹⁾

2.3.1 卷22의 교감 및 서체

『華嚴經』卷22 사경의 본문은 재조대장경(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의 ‘平’函에 포함된 周本 大藏經을 底本으로 하여 교감하였으며 저본의 경우는 전체가 22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본의 板首題에는 ‘周經 第二十二 第○幅 平’이라는 기록이 있고 그 아래에 刻手名인 ‘思孝刀’라고 매 장마다 밝히고 있다. 권말에는 音釋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본문에 懸吐가 표시가 되어 있다(<그림 1> 참조).

6) 형태사항 : 折帖本, 紺紙金泥, 전체 74折, 1折 크기 : 30.6×11.0cm, 변상화 크기(4折) : 20.3×43.3cm

7) 오세장, 『槿域書畫徵』, 麗代篇, 全元發條, 釋宗古條.

8) 권희경, 『고려의 사경』 (대구: 글고운, 2006), 144.

9) 권희경(2006), 144-148.



<그림 1> 재조대장경 『華嚴經』 卷22의 권수 및 권말의 판수제와 음식, 간기 등



<그림 2> 『華嚴經』 卷22 寫經 書寫者만의 독특한 서체를 보이는 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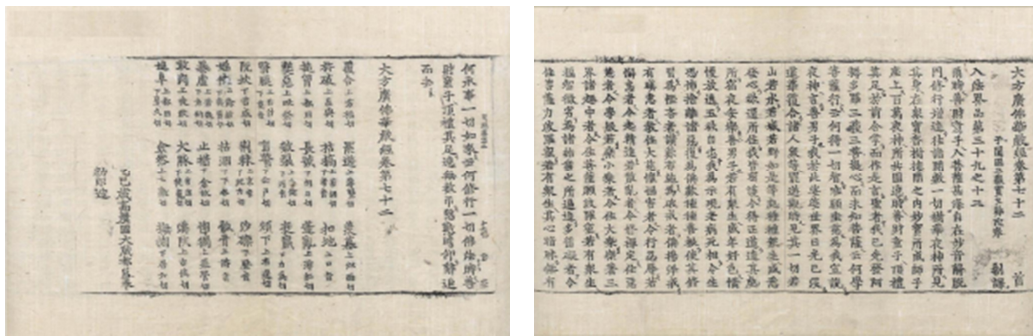
해당 사경에서는 본문을 철저하게 베껴 썼으나 간기 및 판수제, 懸吐의 표시, 音釋은 표시되지 않았다. 1장에 24행씩, 1행 17자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저본과 차이가 나는 특별한 오탈자 및 행간의 드나들어도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서사자만의 독특한 서체를 보이는 글자로는 ‘見’, ‘子’字 등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송설체의 영향이 엿보인다. ‘無’字의 1, 2 획을 보면 삿갓 모양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거나, ‘雨’字의 경우 일반적으로 글자 내의 勒劃이 가로형 ‘一’로 되는 것이 보통이나, 해당 書寫者는 이를 ‘水’字를 쓸 때와 같이 策, 掠, 啄, 磔의劃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특히 ‘兜’字의 경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그어지는 掠劃의 빠침이 유난히 짧아 독특함을 나타낸다(<그림 2> 참조).

2.3.2 卷72의 교감 및 서체

『華嚴經』 卷72 사경의 본문은 재조대장경(乙巳歲高麗國大藏都監奉勅雕造)의 ‘首’函에 포함된 周本 大藏經을 底本으로 하여 교감하였으며 저본인 판본은 전체 17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본의 板首題에 ‘周經 第七十二 第○幅 首’라고 쓰고 그 아래에 刻手名인 ‘大立’이라고 매 장마다 밝히고 있다. 권말에는 音釋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본문에 懸吐가 표시가 되어 있다(<그림 3> 참조).

해당 사경에서도 간기 및 판수제, 현토와 음식은 표시되지 않았고, 본문을 철저하게 베껴 쓴 것으로

확인된다. 1장에 24행씩, 1행 17자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저본과 차이가 나는 특별한 오탈자 및 행간의 드나듦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분량과 내용 등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재조대장경에서는 5字句의 偈頌부분이 4단으로 나열되어 있는 반면 卷72 사경은 3단으로 배열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조사해본 결과, 磧砂大藏經의 해당 권차의 계송부분 배열이 본 사경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해당 사경을 제작할 당시 중국 磧砂大藏經의 일부 체계를 함께 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4> 참조).



<그림 3> 재조대장경『華嚴經』卷72의 권수 및 권말의 판수제와 음식, 간기 등



<그림 4> 卷72 5字句의 계송부분 비교(좌; 사경 7張, 우; 재조대장경 5幅)

서체에서는 간혹 저본에 판각된 글자를 그대로 베껴 쓴 경우처럼 보이는 예가 발견되는데 ‘流’, ‘高’, ‘修’字 등이 이에 해당한다(<그림 5> 참조). 한편 ‘切’, ‘所’, ‘大’字서 등에서와 같이 서사자만의 독특한 필체가 묻어나는 글자들도 종종 확인된다(<그림 6> 참조).



卷72 대장경의 글자



卷72 사경의 글자

<그림 5> 저본을 따라 쓴 글자



<그림 6> 卷72 寫經 書寫者만의 독특한 서체를 보이는 글자

3. 양식 분석

3.1 표지화

김병구 소장 卷22의 자료와 동일한 양식의 표지화 및 변상화를 지닌 대표적인 자료로는 일본 덕천여명회 소장 卷1·4, 일본 대화문화관 소장 卷35·36을 비롯하여 일본 태산사 소장으로 오사카 시립미술관에 기탁되어 있는 卷42, 그리고 소장처 미상의 卷78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가 折帖本の 紺紙金泥 사경이다. 최근 공개된 卷72의 표지화 또한 앞의 자료들과 동일한 양식을 지녔다.

<표 1>에서와 같이 이들 사경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제작된 절첩본 사경 표지화의 일반적 양식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대개 세로로 3~4개의 연화가 배치되고 이를 당초문양이 지그재그로 감싸는 것이 일반적인 양식이나, 앞서 언급한 자료들은 銀泥를 전혀 쓰지 않고 모두 金泥만을 이용하여 묘사하였으며, 10개의 연화가 맨 위쪽으로부터 2개, 1개, 2개, 2개, 1개, 2개로 배치되어 있으며 당초문은 연화문을 둘러싼 형상으로 장식되어 있다. 연화의 화심 아래쪽에는 ‘山’字形의 꽃술받침이 그려지고 그 위쪽으로는 金泥 윤곽선 아래에 2줄의 짧은 金泥線으로 꽃술을 표현하고 있다. 도형의 꼭지부분부터 향기가 그려지며, 金泥 圓紋으로 처리하였다. 가장자리는 태선-세선으로 장식되고 있으며, 표제 역시 태선-세선으로 장식된 장방형 구획선 속에 쓰여 졌으며 표제의 위쪽에는 復蓮形의 寶蓋와 아래쪽에는 仰花가 표현되었다. 고려사경의 표지화 중 단연 화려함이 돋보이는 독특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알려진 김병구 소장 『華嚴經』 卷22의 표지화 역시 <그림 8>에 나타난 자료들과 동일한 형태와 양식을 보인다. 연꽃의 수와 배열, 銀泥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연화의 연판과 당초문

양, 표제를 둘러싼 태선-세선의 2중선, 표제 위의 복련이 삼등분 된 점과 표제 아래쪽 양화의 모습 등에서 그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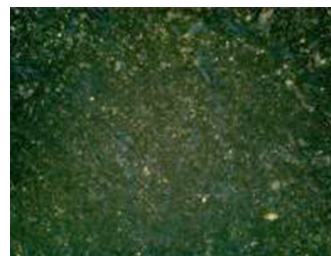
卷22 앞·뒤 표지



표지 금니(500배)



표지 보상화문(160배)



표지 종이부분(160배)

<그림 7> 卷22 寫經의 앞·뒤 표지 및 세부사항



卷4 앞표지



卷35 앞표지



卷36 앞표지



卷42 앞·뒤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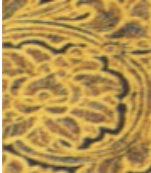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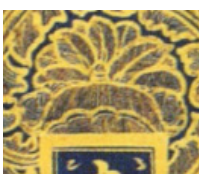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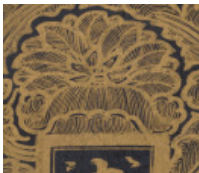
卷72 앞표지



卷78 앞표지

<그림 8> 각 권차별 표지화

<표 1> 각 권차별 앞표지의 세부사항

권차	테두리 선	표제 위의 복련부분 보개	표지제첨부분 향우의 연화
4			
22			
35			
36			
42			
72			
78			

3.2 변상화

변상화의 내용은 김병구 소장 卷22와 더불어 卷72 변상화의 내용도 덧붙여 살펴보았다. 도상별 특징은 가장자리 문양대, 지운문, 여래와 협시의 표현, 보개, 수미단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3.2.1 내용

<그림 9>는 卷22 본문의 첫 장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39품 가운데 제23 昇兜率天宮品の 장면이다.



<그림 9> 卷22 변상, 절첩본, 감지금자, 1절의 크기 31.0×10.9cm, 김병구 소장



<그림 10> 卷22 변상판화, 해인사 소장

제5회 도솔천궁회가 시작되는데 金剛幢菩薩이 會主가 되어서 십회향법문을 설하며 膝輪光을 놓아 대지해광명삼매에 들었다. 부처가 보리수 아래[不起菩提樹]와 수미산정, 도리천, 야마천을 떠나지 않고[不起仞利, 不起夜摩] 도솔천에 올라[佛乘兜率]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했다. 변상의 오른쪽에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 있는 모습을 그렸고, 중앙에는 도리천에 있는 모습, 왼쪽에는 도솔천에 오르는 모습, 그 오른쪽에는 야마천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묘사했다.¹⁰⁾ 각 설명하는 위치마다 방제를 두어 장소명을 기록하였다.

해당 자료의 변상화는 가장자리의 태선·세선-금강저·갈마-세선·태선의 문양대 속에 그려져 있다. 우선 구도면에서 다른 권차의 변상화들과는 약간 차이를 보인다. 향우에는 설법도, 향좌에는 경전의 내용이 묘사되는 일반적인 구도에서 벗어나 설법의 장소를 달리하며 본존이 위치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먼저 우측 상단에는 寶蓋 아래에 위치한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향좌에 2명, 향우에 7명의 협시보살이 겹쳐 그려져 있다. 보타의 좌우로는 공양물을 올리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보살 2명이 묘사되고, 화면 상단의 좌측부분 일부에 9명의 보살이 운문과 함께 그려져 있으며, 여기까지가 모두 사자좌에 앉은 여래를 찬탄하기 위해 자리한 보살들로 총 20명을 나타내고 있다. 본존이 앉은 대좌 앞의 보타 바로 아래에는 도솔타천왕이 자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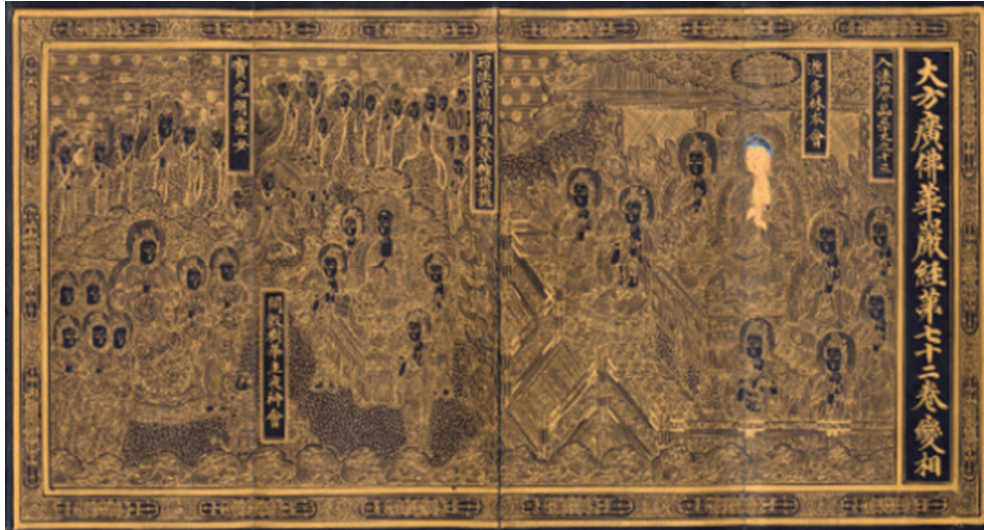
우측 하단에는 보리수 아래에서의 설법장면으로 본존과 양협시가 묘사되어 있다.

화면 좌측 상단에는 『佛乘兜率』이라는 명찰 왼쪽으로 轉法輪印일 취한 여래와 협시보살 2명이 함께 측면향을 향하고 있다. 화면의 여백에는 온갖 보배의 광명이 비추는 장엄함을 묘사하고 있다. 화면 좌측 하단에는 왼쪽에 『不起夜摩』, 오른쪽에 『不起兜利』에서 설법하는 여래가 각각 8대보살을 거느리고 설법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해당 변상화에서 우측의 여래 2구의 두광은 파상문을 표시하였으나 왼쪽 3구의 여래는 두광이 감지의 검은색으로 그냥 비어있는 듯 묘사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또한 여래의 양협시 보살의 두광도 파상문을 생략하고 있다. 여래의 육계는 모두 코발트 채색이 더해져 있으며, 입술과 가슴의 ‘卍’字는 분홍색을 칠한 것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얼굴과 목, 가슴과 손에 채색을 더한 것 또한 큰 특징이다.

변상화의 저본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해인사 소장 재조대장경 주본 『華嚴經』 권22의 변상판화를 함께 살펴보면, 그 등장인물의 수나 여래와 협시보살들의 위치 및 방향 등이 대체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제작할 때 참고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10) 『大方廣佛華嚴經』 22권(ABC, K0080 v8, p.556c07-c16).



<그림 11> 卷72 변상 절첩본, 감지금자, 1절의 크기, 30.8×10.9cm, 미국 뉴욕공공도서관 소장

<그림 11>은 卷72의 내용을 묘사한 것으로 입법계품 39지13에 해당하며 선재동자가 이곳에서는 모든 나무의 꽃을 피우는 밤을 주관하는 神開敷一切樹華主夜神을 만나 해탈문을 듣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사경변상화 역시 가장자리의 태선·세선-금강저·갈마-세선·태선의 문양대 속에 그려져 있다. 변상화 표제에 이어 『入法界品三十九之十三』이라는 품제가 장방형 속에 쓰여 있다.

향우 설법도의 모습은 일본에 소장된 『華嚴經』 卷35·36·42 등의 변상화에서 보여 지는 것과 거의 동일하나, 전각의 지붕을 비롯한 여래와 보살들의 주변을 꽃문양(물고기의 지느러미 같은 형상)으로 가득 채워 장식한 것 등은 해당 권차(권72)에서만 보여 지는 특징이라 하겠다. 『逝多林本會』라는 방제를 통해서 해당 설법이 이루어진 곳이 기원정사가 있는 숲임을 알 수 있다.

제 3면이 시작되는 부분의 화면 상부에는 먼저 『一切法音圓滿蓋王發十種語布施』라는 방제를 두었으며, 일체법음원만개왕¹¹⁾이 열 가지 말로 보시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옛날 남섬부주 사람들의 壽命이 일 만 세였을 때 일체법음원만개왕이 있었는데, 그 세계의 겁이 다하려할 때 五濁이 생겨 백성들은 궁핍하여 질병이 많아 사망으로 흩어져 다니며 의지할 데가 없어 모두 임금을 향하여 하소연하였다. 여기에 그 대왕은 十種大悲語¹²⁾를 말하고 창고의 문을 열어 일체의 보배와 의복과 음식으로 보시하며 내지 마을과 성시, 동산과 숲, 처자와 권속은 물론 왕의 지위까지도 베풀어 주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볼 수 있다. 좌정한 대왕의 좌우로는 13명의 시중들이 나란히 또는 중첩되어 서있고 보시한 것들을 나열한 보탁 아래에는 백성을 상징하는 듯한 인물 3구가 앉아 있는

11) 화면에서는 ‘一切法音蓋王發十種語布施’라고 하여 ‘滿’자가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대체로 이 내용은 중생의 생사·번뇌의 꾀박, 生老病死의 공포, 迷惑, 질투, 감탄, 아첨 등의 마음을 바꾸어 편안함을 얻게 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모습이다.

화면 좌측 하단에는 『開敷樹華主夜神會』라는 방제가 있으며, 방제의 향좌에 선재동자가 이 야신에게서 전생 설화를 듣고 해탈문을 성취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그 위쪽으로는 『寶光明童女』라는 방제가 확인되며, 방제의 향좌와 제3면의 하단부분은 전생에 보광명동녀였던 야신의 전생담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 그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 그(야신)는 부처님의 회상에서 큰 長者의 딸로서 이름을 寶光明이라 하였으며, 아버지는 淨光明이고 어머니는 蓮華光이었다고 한다. 또 앞서 언급했던 일체법음원만개왕은 지금의 비로자나 여래이며, 정광명왕은 바로 淨飯王이고 연화광부인은 摩耶夫人이며, 보광명동녀는 곧 야신인 자기 자신임을 이야기 하게 된다.¹³⁾ 경문에서는 보광명동녀는 60명의 동녀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서술되지만 변상화에서는 1/10로 축소하여 6명만을 묘사하였다.

3.2.2 도상별 특징

동일한 양식을 지닌 이들 사경변상화의 가장자리에는 바깥쪽으로 태선·세선, 세선·태선·세선의 구획선을 긋고 그 속에 金剛杵와 羯磨가 교대로 그려져 있다(<표 2> 참조). 특히 태선의 두께가 많이 두꺼워져 있어 충숙왕대 양식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가장 공통적인 특징으로 변상화 테두리의 금강저가 위·아래 각 6개, 좌우 각 3개씩으로 동일하다. 뿐만 아니라 금강저 중앙의 원화에 네 모서리를 渦紋으로 장식한 점, 꽃받침의 표현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점들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三鈷杵의 형상에서 삼고의 모양이 마치 세형동검을 연상시키는 형태로 나타나며, 三鈷의 반대 방향에 2개의 갈고리 형이 양쪽으로 그려져 있다. 이러한 표현은 충숙왕대의 사경변상화에서 볼 수 있는 큰 특징으로 그 이후 제작된 사경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화면 아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지운문의 양식 또한 셋 혹은 넷씩 엇겨 붙은 듯이 그려져서 하나의 덩어리로 표현된 점이나, 운문의 바깥쪽으로 여백을 두고 가장자리를 다시 테두리로 두른 점 등이 양식적으로 같다(<표 2> 참조). 이러한 양식은 충혜왕 이전에 나타나는 양식으로 충혜왕대에는 이들 운문이 4-5개씩이 한데 엇겨있는 형상으로 바뀌고 운문덩어리 위에 파상곡선으로 테두리를 두르는 양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림 12>를 참고하여 변상화에 그려진 설법도의 인물형상에 대해 살펴보면, 우측의 주존불과 보리수에 오른 여래는 두광과 신광이 모두 파상문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반면, 도솔·도리·야마천에 있는 여래를 포함하여 모든 협시보살들은 두광이 비어져있는 상태로 바탕색인 짙은 갈색이 그대로 나타나있다. 그러나 여래의 육계가 코발트색으로 칠해져 있고 백호와 얼굴, 목 부분은 금니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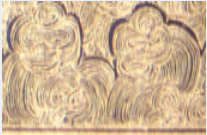
13) 『大方廣佛華嚴經』 72권(ABC, K0080 v8, p.882c11-c15).

『大方廣佛華嚴經』 72권(ABC, K0080 v8, p.887b19-c03).

『大方廣佛華嚴經』 72권(ABC, K0080 v8, p.884c19-p.885a11).

칠해진 점, 귀와 얼굴의 윤곽선은 물론 통견의 사이로 드러난 가슴의 윤곽선과 가슴 한가운데 쓰여 있는 ‘卍’자가 분홍색 채색된 점은 모두 동일하다. 이러한 표현은 권22를 포함한 7건의 『화엄경』 사경의 인물묘사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표 3> 참조).

<표 2> 각 권차별 가장자리 문양대 및 지운문 부분

권차	가장자리 문양대	지운문
1		
4		
22		
35		
36		
42		
72		
78		



비로자나 여래



불기보리수



불승도솔



불기도리



불기야마

卷22 변상화에 등장하는 다섯 여래의 모습



여래 가슴 만자부분 (160배)



여래 두발 채색(160배)



여래 얼굴 채색(16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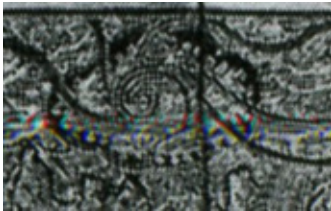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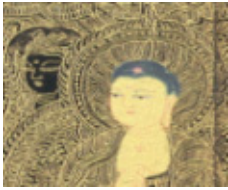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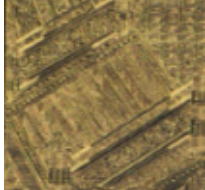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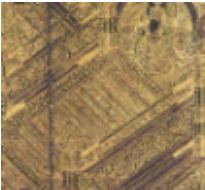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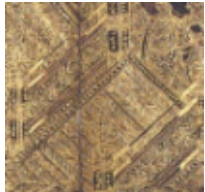
권22 지질확대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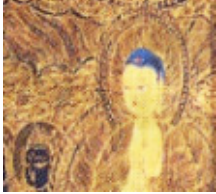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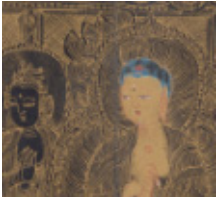
<그림 12> 卷22 변상화의 여래 및 보살의 확대모습

보개 양식의 경우 충렬왕대에는 여래의 크기만큼이나 당당하고 크게 그려지던 것이 충숙왕대에 이르면 보개의 아랫부분만 보이도록 그려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충숙왕대 초기의 보개 모습과 비교하여 해당 8건의 『華嚴經』에서 나타나는 보개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형상이 모두 드러나게

그러지고, 특히 아랫부분의 수술을 도식화 한 듯 표현하면서 그 크기를 대체적으로 작게 그렸다는 특징이 있다. 수미단의 계단은 층계가 충실히 표현되어 있다. 이 계단표현은 고려말기가 되면 화문형상으로 바뀌어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사경의 제작 시기는 고려말기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는 요소라 하겠다(<표 3> 참조).

<표 3> 각 권차별 보개, 여래와 보살의 두광, 수미단의 비교

권차	여래와 보살의 두광	보개	수미단 계단
1			별도의 수미단 없음
4			
22			별도의 수미단 없음
35			
36			

권차	여래와 보살의 두광	보개	수미단 계단
42			
72			
78		여래가 등장하지 않아 보개 없음 (옆의 보살들의 빈 두광 및 전각의 계단 모습 참고)	

여래의 보발에 코발트 안료를 사용한 사경변상화는 위에서 살펴본 자료들 이외에 국내에도 해인사 정보박물관 소장의 고려 1326년(충숙왕 13, 泰定 3) 發願된 『文殊最上乘無生界法』의 변상화를 들 수 있다(<그림 13> 참조).¹⁴⁾ 해인사 소장의 변상화에서는 여래와 보살, 여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指空의 두 발까지 코발트색으로 칠해져 있다. 또한 코발트색으로 칠해진 보발 가운데에 그려진 계주와 입술은 선명한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얼굴의 윤곽과 通肩衣 사이로 드러난 가슴의 윤곽선을 비롯하여 가슴 한가운데 있는 ‘卍’字가 모두 분홍색으로 그려져 있다. 한편, 해당 사경의 크기는 소형 수진본으로 변상화의 테두리 부분의 장식이 일반적인 문양대로 나타나지 않고 태선·세선으로 간략히 처리하였다.

『文殊最上乘無生界法』의 채색 안료 사용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禪源寺毘盧殿丹青記’¹⁵⁾의 기록을 주목하였다. ‘大德 己巳年에 타 버린 불전과 묘당을 재건하였으나 단청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幻菴和尚이 주지로 들어와서 門徒 奎忍에게 돈을 주어 송에 가서 端確(진사의 일종으로 붉은 안료)을 사오도록 했고 전인이 송으로부터 귀국하자 태정 갑자년인 1324년(충숙왕 11) 가을에 단청을 올렸다’고 하니 충숙왕대에 안료에 대한 수요가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14) 이 사경은 충숙왕대 제작된 연대 확실한 사경 중의 하나로, 이 사경의 뒷 표지화에 그려진 연화 부분의 묘사가 본문에서 살펴본 8건의 『華嚴經』 사경표지화와 매우 흡사한 점을 감안하면 그 제작시기가 동시기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15) 『東文選』 卷65.

16) 권희경(2006), 452-453.



<그림 13> 『文殊最上乘無生界法』 1326, 변상 절첩본, 감지금자, 1절의 크기 8.2×6.3cm, 해인사 소장

앞서 살펴본 자료 외에도 채색 안료를 사용한 또 다른 사례로는 1315년(충숙왕 2) 제작된 일본 大乘寺 및 天倫寺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法華經』 7권본 1부와, 1325년(충숙왕 12)에 제작된 일본 羽賀寺 소장의 『法華經』 7권본 1부가 있다. 이 2질의 『法華經』도 앞서 살펴본 8건의 『華嚴經』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백호와 입술은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으며, 귀와 얼굴 윤곽선, 통견의 사이로 드러난 가슴의 윤곽선에 역시 분홍색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1389)이나, 영남대학교 소장된 『法華經』 卷317의 경우에도 이러한 채색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채색 안료를 사용한 사경은 여러 경전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華嚴經』에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채색안료를 이용한 사경제작은 더 큰 공덕을 쌓기 바라는 사성자들의 중요한 표현방법으로 자리 잡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경의 사성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각 소장처마다 상이한 설명이 덧붙여져 있어 이를 간략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간행된 전시회 도록의 해제(執筆者; 林進 하야시 스스무)에서는 해당 사경들의 사성시기를 지정년간(至正年刊, 1341~1367)경으로 추정하였으며, 미국 뉴욕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는 卷72의 제작시기를 ‘1360~1390’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 및 조사에서 해당 사경들의 사성시기를 일본에서는 14세기 중기, 미국에서는 14세기 후기로 상이하게 비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이들 자료들의 표지화 및 변상화의 양식을 살펴본 결과 해당 사경들의 사성 시기는 14세기 중반을 하한선으로, 후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17) 해당 경전의 변상화에서는 안료의 사용이 두드러지기는 하였으나, 수미단의 계단이 화문으로 되어있는 점을 볼 때 충숙왕대 이후 고려말기경 제작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4. 맺음말

고려시대에 제작된 일반적인 사경들과는 달리 표지화의 양식이 독특하면서도 변상화에 채색안료를 사용한 고려 사경들을 살펴보았다.

이들『華嚴經』은 일본 덕천여명회 소장 卷1·4, 일본 大和文華館 소장 卷35·36권과 일본 太山寺 및 天倫寺 소장으로 현재 오사카시립미술관에 기탁되어 있는 卷42와 소장처 미상의 卷78이다. 여기에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김병구 소장 卷22와 미국 뉴욕공공도서관 소장 卷72를 포함한다.

여래의 얼굴이나 가슴의 윤곽선을 금으로 표현한다거나, 가슴의 ‘卍’字 등에 분홍색을 사용한 또 다른 자료로는 일본 大乘寺 및 天倫寺 소장『法華經』7권본 1부나 일본 羽賀寺 소장『法華經』7권본 1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육계가 코발트색으로 표현된 자료로는 1326년(충숙왕 13)에 제작된 해인사정보박물관 소장『文殊最上乘無生界法』 등도 포함된다. 이렇듯 채색 안료를 이용한 사경은 귀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훨씬 더 큰 공덕을 쌓기 바라는 寫成者들의 중요한 표현 방법 중의 하나로 이용되어졌을 것이다.

새로 발견된 김병구 소장『華嚴經』卷22를 비롯하여 본문에서 살펴본 총 8건의 사경들은 모두 表紙畫에 10송이의 蓮花를 배치하고, 變相畫에는 코발트색 및 분홍색의 顔料를 사용함은 물론 가장자리 문양대(三鈷杵의 모양)와 地雲紋, 寶蓋의 표현 등에서 모두 동일한 양식적 특징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사경의 제작 시기는 14세기 초중반일 것으로 여겨진다. 추정컨대, 1帙의『華嚴經』寫經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 보관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본고에서 다룬 이 사경은 그 1질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 소개한『華嚴經』卷22 사경은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며, 일본과 미국에 소장된 것들과 동일하게 10송이의 연화를 그린 표지화 및 채색 안료를 사용한 변상화가 잘 갖추어져 있어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신출 자료가 추가됨에 따라 동일한 양식의『華嚴經』寫經의 1帙이 갖추어지는 데에 조금의 보탬이 됨과 동시에 앞으로 더 많은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해당 자료의 제대로 된 보존과 활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吉田宏志, 菊竹淳一. 『高麗佛畫』. 東京: 朝日新聞社, 1981.

浙江大學 亞洲研究中心編. 『高麗畫全集 1- 舊美所藏篇』. 杭州: 浙江大學出版社, 2018.

- 국립중앙박물관. 『사경변상도의 세계 - 부처 그리고 마음』. 서울: 지앤에이커뮤니케이션, 2007.
- 권희경. 『고려의 사경』. 대구: 글고운, 2006.
- 김경호. 『한국의 사경』. 서울: 골륜, 2006.
- 이승재. 『50권본 화엄경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 장충식. 『한국사경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7.
- 장충식. 『고려화엄판화의 세계』.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2.
- 해인사정보박물관. 『誓願 ; 해인사 비로자나불 복장유물 특별전』. 합천: 해인사정보박물관, 2008.

[전자정보]

미국 뉴욕공공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https://digitalcollections.nypl.org>>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Choong-Shik. 1982. *Hwa-om (Avatamsaka Sutra) Engravings in the Koryo Dynasty*. Seoul: Asian Cultural Press, LTD.
- Chang, Choong-Shik. 2007. *Korean Manuscript Research*. Seoul: Dong-guk University Press.
- Haeinsa museum. 2008. *Special Exhibition on Relics installed inside of Vairocana Images's Buddha Statue-Adjuration*. Hap-cheon: Hae-insa museum.
- Kikutake, Jun'ichi, & Yoshida, Hiroshi. 1981. *Koryo Buddhist Painting*. Japan, Tokyo: Asahi Shimbun Publishing Company.
- Kim, Gyeong-Ho. 2006. *Buddhist manuscripts of Korea*. Seoul: Korean Manuscript Research Group.
- Kwon, Hee-Kyung. 2006. *Buddhist manuscripts of Goryeo*. Daegu: Geulgoun Press.
- Lee, Seung-Jae. 2006. *Fifty-volume edition of the Avatamsaka-sutr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National Museum of Korea. 2007. *Sutra painting: in search of Buddhahood*. Seoul: GNA Communication.
- Zhejiang University of Asian Studies. 2018. *The Complete Illuminated Manuscripts of Goryeo 1- Old American possession section*. China, Zhejiang: Zhejiang University Press.

[부록] 현존 고려시대 화엄경 사경 현황

[국내]

권차	사성시기	변상	형태	재질	소장처	비고
주본 권5/6	[14세기 중기]	○	절첩본	감지은니	성보문화재단	보물 제755호
주본 권15	1334년(충숙왕 복위 3)	○	권자본	감지금니	코리아나화장박물관	보물 제1412호
주본 권15	[14세기 중기]	○	절첩본	감지금니	삼성리움박물관	
주본 권21	1338년(충숙왕 복위 7)		절첩본	상지은니	국립중앙박물관	
주본 권22	[14세기 초중기]	○	절첩본	감지금니	개인 소장	
주본 권27	[14세기 초기]	○	절첩본	감지금은니	국립중앙박물관	
주본 권37	[14세기]	○	절첩본	감지은니	성보문화재단	보물 제754호
주본 권46	[14세기]	○	권자본	감지금니	양산 통도사	보물 제757호
주본 권47	[14세기 말기]	○	절첩본	감지금니	국립중앙박물관	
주본 권48	[14세기 말기]		권자본	감지은니	화성 봉림사	보물 제1095-2호
주본 권12/16/17/40/41	1324년(충숙왕 11)	○ (41)	절첩본	감지은니	동국대학교박물관 (청원사본)	
주본 권60	[14세기]		절첩본	감지금니	경주 기림사 소장	
주본 권69	[14세기]		절첩본	자지금니	삼성리움미술관	
진본 권12	[14세기 말기]	○	절첩본	감지금은니	삼성리움미술관	
진본 권13	1329년(고려 충숙왕 16)		권자본	감지은니	성보문화재단	보물 제1103호
진본 권25	[14세기 말기]		절첩본	상지은니	경주 기림사	보물 제959-1-9호
진본 권37	[충숙왕 복위 연간이후]		절첩본	감지은니	호림박물관	국보 제202호
진본 권49	[충숙왕 16년(1329) 이전]		절첩본	감지금은니	양산 대성암	경남 유형 제 390호
진본 권43	[충정왕-공민왕대]		절첩본	감지금니	부안 내소사	
정원본 권4	[14세기 말기]		절첩본	상지은니	국립중앙박물관	보물 1137호
정원본 권16						
정원본 입불사의해탈경계 보현행원품	1334년(충숙왕 복위 3)	○	권자본	감지금니	성보문화재단	보물 제752호
정원본 권31	1337년(충숙왕 복위 6)	○	권자본	감지은니	삼성리움미술관	국보 제215호
정원본 권34	1337년(충숙왕 복위 6)	○	권자본	감지은니	성보문화재단	보물 제751호
정원본 권40	[14세기 중기]	○	절첩본	감지은니	동아대학교박물관	
정원본 행원품신중합부	1350년(충정왕 2)	○	절첩본	감지금니	국립중앙박물관	
보현행원품	[1341~1367]	○	절첩본	감지금니	삼성리움미술관	국보 제235호
보현행원품	1372년	○	절첩본	감지금은니	성보문화재단	
보현행원품	1390년	○	절첩본	백지금니	동국대학교박물관	

[국외]

권차	사성시기	변상	형태	재질	소장처	비고
주본 권1/4	[14세기 중기]	○	절첩본	감지금니	일본 徳川黎明會	
주본 권7	[14세기 중기]	○	절첩본	감지은니	일본 根津美術館	
주본 권35/36	[14세기 중기]	○	절첩본	감지금니	일본 大和文華館	
주본 권42	[14세기 중기]	○	절첩본	감지금니	일본 太山寺	
주본 권24/53/56/60	[1336년 : 충숙왕 복위 연간]		절첩본	감지은니	일본 개인	
주본 권72	[1360-1390]	○	절첩본	감지금니	미국 뉴욕공공도서관	
주본 권71/72/73	1291년(충렬왕 23)	○	절첩본	감지금은니	일본 守屋孝藏 collection	
주본 권78	[14세기 중기]	○	절첩본	감지금니	일본 (所藏處未詳)	
진본 권12	[14세기 중기]	○	절첩본	상지금니	일본 根津美術館	
진본 권28/29/38	[1336년 : 충숙왕 복위 연간]		절첩본	감지은니	일본 개인	
진본 권59	[공민왕-우왕대]	○	절첩본	감지금니	일본 徳川黎明會	
권31/32(합본)	1392년(조선 태조 원년)		권자본	백지묵서	일본 개인	
권67/68(합본)	1392년(조선 태조 원년)		절첩본	백지묵서	일본 京都國立博物館	
보현행원품	1291년(충렬왕 23)	○	절첩본	감지금니	일본 京都國立博物館	